

문 46: 제 1 계명의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46: 제 1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역대상 28:9; 신명기 26:17; 마태복음 4:10; 시편 95:6-7, 29:2

추가질문 1: 제 1 계명은 우리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승인하라는 것인가?

추가질문 2: 우리가 알고 승인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추가질문 3: 제 1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4: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 되신다는 것은 다른 신들은 절대로 참신이 될 수 없다는 말인데,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추가질문 5: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이 그대로 승인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 설명:

제 1 계명의 요구는 우리가 여호와와 유일한 참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문 46에서는 “알고 승인”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알고 승인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셨으며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전인 즉 영성, 이성, 감정, 지성 모두가 여호와가 하나님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한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 그를 체험케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된 이스라엘에게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사귄때에 우리는 아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진정한 친구의 사이가 될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또 여러가지의 체험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매일 매일 승인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때에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결정했다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알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야훼(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어떤 사람도,

사물도 참신이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외에 또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표현으로 인해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 1 계명은 이 부분을 너무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태도역시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참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참신이 아닌 가짜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참 유일신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종교에 소속한 사람을 볼 때 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몹시 불편하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 그들도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성경과 제 1 계명은 구원은 하나님안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증거하고 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 1 계명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제 1 계명을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참신을 섬기는 자가 참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제 1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머지 9 가지 계명도 함께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삶은 정말 아름다울수 밖에 없다.

십계명을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삶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이었다. 하나님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제 1 계명을 지켜야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제 1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제 1 계명에는 조금만한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걸고 하나님은 제 1 계명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다.